

부설학교 대학회계 직원 대체근무 지원방안

□ 추진배경

- 2023년 3월 교육부의 관계 규정 위배 가능성 제기에 따라 부설학교 근무 대학회계 직원의 6개월 이내 대학 본부 복귀 조치 요구
 - * 교육부 대학회계 직원 본부 복귀 시한 2025. 3. 31.까지로 연장(2023. 8월)
- 대학회계 직원 복귀 후 부설학교 행정 공백 방지 대책 수립 및 부설학교 행정의 안정성, 지속성 확보 필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전국 1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14개 부설학교 행정실 근무 인원 57명 중 공무원은 23명, 대학회계 직원은 15명, 기타 19명

구분	공무원	대학회계 직원	자체 채용 등 기타	합계
인원	23명(40%)	15명(26%)	19명(34%)	57명(100%)

- 우리 대학 부설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공무원이 적고 대학회계 직원이 많아 복귀 후 행정에 큰 공백 발생 예상
 - * 공무원 1명(행정6), 대학회계 직원 4명, 자체 채용 직원 1명
- 현재 부설학교 재정상태 악화에 따라 대학 본부로 복귀한 대학회계 직원을 대체할 추가 직원 채용 역부족

□ 개선방안

- 대학회계 직원은 「국립대학회계법」에 따라 등록금 수입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투입
- 타 부설학교 인력배치 현황을 참고하여 우리 대학 7급 이하 공무원 1명을 부설학교 행정실에 배치
- 충청북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행정직원 파견을 요청,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중등교육 업무 효율 상승효과 기대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협의 및 공문 발송
- 대학회계 직원 단과대학 행정실 발령 등 인사 이동